

일부 수능 탐구 과목에서 백분위 100이 없는 이유는?

탐구 과목을 결정하려고 지난 수능 결과를 보니 만점을 받아도 백분위 100이 안 나오는 과목이 있네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시험이 쉽거나 우수한 학생이 몰려 만점자수가 많기 때문

수능에서 백분위는 전체 응시자 중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석차 비율을 의미합니다. 백분위는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 수와 동점자 수의 절반을 더해 전체 응시자 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계산합니다. 백분위 95라면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전체의 95%에 달해 상위 5%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text{백분위} = \left(\frac{\text{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 + (\text{동점자 수} \div 2)}{\text{전체 응시자 수}} \right) \times 100$$

응시자 수가 충분히 확보됐고 적절한 난도였다면 일반적으로 만점이 백분위 100을 받습니다. 한데 시험이 쉬웠거나 우수한 학생이 몰려 만점자가 응시자 수의 1%를 훌쩍 넘기게 되면 만점을 받아도 백분위 100이 나오지 않습니다. 2026학년 수능에서 만점의 백분위가 100이 안 된 경우는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지구과학Ⅱ>의 경우 응시자 4천264명 중 만점자가 163명(3.82%)이었고, 이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98.08%에 달했습니다. 때문에 만점을 받아도 백분위는 98에 그쳤습니다(표). 만점은 대부분 1등급이라, 이 같은 현상은 수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정시의 경우, 서울 주요 대학은 백분위 기반의 변환 표준점수를 주로 활용하고 있어 낮은 백분위는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②

표_ 2026 수능 탐구 영역 만점(50점)의 표준점수와 백분위					
사회탐구	표준점수	백분위	과학탐구	표준점수	백분위
생활과 윤리	71	100	물리학Ⅰ	70	100
윤리와 사상	70	100	화학Ⅰ	71	100
한국지리	72	100	생명과학Ⅰ	74	100
세계지리	73	100	지구과학Ⅰ	68	99
동아시아사	68	99	물리학Ⅱ	68	99
세계사	72	100	화학Ⅱ	70	99
경제	70	99	생명과학Ⅱ	69	99
정치와 법	67	99	지구과학Ⅱ	69	98
사회·문화	70	100			